

함께 즐거워하고 2012 함께 울라

Celebrating Together, Suffering Together (롬 12:15)

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

양재 주일 예배

담임목사 이재훈

우)140-240,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-96
전화 : (02) 793-9686, 573-9666(양재)
팩스 : (02) 796-0747 / www.onnuri.or.kr

서빙고 주일예배

1부 06:50 이재훈 목사
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(히4:1-11)
2부 09:00 이재훈 목사
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(히4:1-11)
3부 11:20 이재훈 목사
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(히4:1-11)
4부 13:50 이재훈 목사
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(히4:1-11)
영어예배 16:00 에디번 목사
The King of Kindness (Psalm81:1-13)
심자의 길 예배 18:00 빈철히 목사
루다의 뱀로 가는 길 (창 3:1-17:22)
열린새신자예배 19:00 조철민 목사
믿음의 삶 (벧전 7:1-9)
9시에 드는 별 20:50 여성민 목사
기쁨은 선택입니다 (렐4:4-7)

부천 주일예배

• 09:00 이재훈 목사 / 11:30 이재훈 목사
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(히4:1-11)

수원 주일예배

• 09:00 박형준 목사 / 11:30 이재훈 목사
아름다운 영의 통리 (사33:17-24)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(히4:1-11)

대전 주일예배

• 09:00 이재훈 목사 / 11:30 윤길중 목사
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(히4:1-11) 은혜의 자리로 (히4:14-16)

남양주 주일예배

• 11:00 피현희 목사 / 11:00 이재훈 목사
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(히4:1-11)

평택 주일예배

• 09:00 이재훈 목사 / 11:30 박철용 목사
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(히4:1-11) 물려와기를 힘쓰라 (렐12-18)

인천 주일예배

• 09:00 이재훈 목사 / 11:20 이준호 목사
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(히4:1-11) 바게 있는 것으로 (렐31-10)

강동 주일예배

• 09:00 이재훈 목사 / 11:30 성종원 목사
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(히4:1-11) 믿음과 순종의 기쁨 (창상17:1-7)

예배시간

• 1부 07:00 Classic 예배 조호영 목 사
• 2부 09:00 황중연 목 사
09:00 도곡교육관 박태영 목 사
• 3부 11:30 열린예배 황중연 목 사
• 4부 14:00 양성민 목 사
• 5부 16:00 여호수아 권영갑 목 사
• 6부 19:00 열린 새신자 열린 문영재 목 사
• 7부 21:00 94여 또는 별 서 현 목 사

● 찬 양 다함께

● 기 도 1부 :정병균 장로 2부 :전대경 장로
도곡교육관:정장부 장로 4부 :정광필 장로

찬양 /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(다함께)

● 특 순 2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이깃찬양사역팀
도곡 거기 너 있었는가 주경배찬양사역팀
3부 IM Amazed 뮤지컬 찬양팀
4부 내 평생 가는길 주기쁨찬양사역팀
5부 온 맘 다해 여호수아 콰이어
6부 You raise me up 썬기 최승원
7부 누군가 기도하네 joy N joy

1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히4:1~11 이재훈 목사
2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히4:1~11 이재훈 목사
도곡 거룩한 불복종 단1:8~21 김주환 목사
3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히4:1~11 이재훈 목사
4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히4:1~11 이재훈 목사
5부 "아무것도 없나이다" 왕하4:1~7 이상준 목사
6부 (사뵈를 뵈러온 한의) 당신도 다니엘이 되이라 단1:8~21 김주환 목사
7부 값을 치른 예배 대상21:17~26 김요성 목사

● 봉헌찬송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함께

● 헌금기도 인도자

● 축 도 인도자

※ 헌금은 들어 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.
※ 다음 주기도 1부예배:김병욱 장로 2부예배:정보원 장로
도곡교육관:정순업 장로 4부예배:정순풍 장로
※ 영어통역(English Interpretation) - 3부(11:30) 예배

※ 2012년은 평양노회 100주년입니다.
평양노회는 한국기독교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.